2019. 4. 2. (화) 언론보도

KBS

2019년 04월 02일 (화)
종합

자전거 체험 평화의 길 '2019 뚜르 드 디엠지' 참가 모집

경기도가 자전거를 타며 DMZ의 생태·역사·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2019 Tour de DMZ'(이하 뚜르드 디엠지)에 참여할 참가자 2천여 명을 오는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뚜르드 디엠지'는 6월 1일(토) 오전 10시 경기도 연천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강원도 철원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56km 코스에서 열립니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참가자 기록을 계측하여 순위를 매기는 '경쟁부문'을 확대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1~2차 두 구간의 기록을 측정해 남녀 각 1위~5위까지 시상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에게 자전거 관련 기념품과 중식을 제공하며, 응원과 군악대 공연, 자전거 느리게 타기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접수는 오는 5월 1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tourde-dmz.co.kr)를 통해 진행되며, 비경쟁 부문도 있어 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라 자전거 초보자도 참가할 수 있다고 경기도 설명했습니다.

'뚜르드 디엠지'는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와 강원도 두 광역지자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자전거 대회로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가 단독으로 처음 개최했으며, 2015년부터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DMZ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주최해왔습니다.

양석현 기자 (burok@kbs.co.kr)

'투르 드 DMZ' 오는 6월 1일 개최

경기도와 강원도 공동주최

[KFM 경기방송 = 최일 기자]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자전거 대회 '2019 투르 드 디엠지(Tour de DMZ)' 행사가 오는 6월 1일 경기 연천~강원 철원 구간에서 열립니다.

투르 드 디엠지 행사는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가 첫 대회를 연 뒤 2015년부터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 협력 차원에서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오전 10시 연천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철원 공설운동장까지 56km를 자전거로 달리게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14일까지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tourde-dmz.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비는 셔틀버스 이용 때 3만원, 이용하지 않을 때 1만5천원입니다.

주최 측은 2천여 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대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관광공사(☎ 031-956-830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